

아시아투데이

2018년 7월 27일 금요일 026면 수도권/전국

삶·매화마름… 파주 평화누리길 멸종위기종 천국

경기도 DMZ 접경지 67km구간 생태조사

국제자연聯 적색목록 식물 10종 발견

흰꼬리수리·원양·저어새 등 다수서식

한반도 분단의 역사가 만들어놓은 비무장지대(DMZ)가 '생태계의 보고'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파주 DMZ 및 평화누리길 일원에서 '2018 상반기 생태자원 조사활동'을 벌인 결과 멸종 위기 생물들이 대거 발견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DMZ 및 평화누리길 생태환경 조사는 파주출판도시에서부터 문산을 반구정(半鷀亭)을 지나 장남교까지 이어지는 파주 평화누리길 4개 코스(6~9코스) 67km 구간에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100과 327속 575종의 식물이 발견됐다. 이중 희귀식물은 할매밀망·취방을 둉굴 등 22종, 특산식물은 벌개미취·외대으아리 등 13종이 목록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경기 파주 DMZ 및 평화누리길 일원에서 발견된 매화마름(왼쪽)과 서어나무 군락지.

/제공=경기도

적색목록(국제자연보호연맹)이 작성하는 멸종 위기 야생생물 목록) 식물도 10종이 발견됐다.

그동안 파주시를 중심으로 DMZ 접경지 일대의 대규모 도시개발로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생태계 파괴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우려를 낳기도 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희귀종이나 야생화 군락지가 파주 평화누리길 곳곳에서 발견돼 개발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풍성했던 생태환경과 특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평화누리길 6코스(출판도시길) 일원에서 극상림(極相林)인 서어나무 군락지와 멸종 위기종 2급인 매화마름을 최초로 발견해 큰 의미가 있었다. 서어나무의 경우 숲의 천이(遷移) 과정 중 극상의 단계에서 주로 관찰된다는 점에서 아직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새들의 천국이라는 명성답게 다양 한 조류가 DMZ 일원에서 발견됐다. 원앙, 호사도오, 재두루미, 황조롱이 등 9종의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14목 34과 56속 79종 9781개체가 이번 조사에서 날아들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멸종위기 1급 흰꼬리수리, 저어새, 멸종 위기 2급 큰기러기, 재두루미, 독수리, 노랑부리저어새, 붉은배새새 등 생태도 함께 포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평화누리길 곳곳에서 고라니, 멧돼지를 비롯해 멸종위기 2급인 삵 등 포유류의 서식도 확인했다. 특히 최상위 포식자인 삵의

서식지가 발견된 것은 평화누리길 생태계가 여전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활동은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DMZ 일원 자연환경 생태조사 및 생태도감 제작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도는 앞서 지난해 연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했고, 올해 하반기 파주 평화누리길 일원을 대상으로 생태자원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김포·고양 일원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2020년까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DMZ생태환경의 조화로운 발전과 평화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임순택 도 DMZ정책담당관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DMZ 일원 자연환경 생태조사를 통해 서도 평화누리길 생태자원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DMZ 및 평화누리길 일원의 생태적 가치를 발굴하고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이대희 기자

“DMZ생태관광, 남북관계따라 단계별 추진”

2차 DMZ정책포럼서 의견나와 관광·교육·의료 등 분야 확대

두번째 열린 DMZ 정책포럼에서 DMZ 생태관광 활성화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단계별 전략 추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파주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열린 ‘2018년도 제2차 경기도 DMZ 포럼’에는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은진 국립생태원 생태보전연구실장 등 DMZ 포럼위원, 전문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임을출 교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경기도 DMZ 평화 관광벨트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DMZ는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구축과 번영의 핵심 축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라는 종합 계획 아래 남북 간 관계 진전에 맞춘 단계별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상대적으로 추진이 용이한 관광에서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인 생태관광과 교육, 의료, 금융 등의 분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단계별 추진 방안도 제시했다.

1단계 재난예방 공동대응으로 상호 신뢰구축, 2단계 DMZ 생태·역사·문화 자원 공동 조사 및 보전·활용 방안 마련, 3단계 남북협의에 따른 관광 교류 협력지구 지정 및 생태관광프로그램 공동개발, 4단계 도로·철도·통신 등 기본 인프라 구축 등이다. 이어 DMZ를 생태관광과 MICE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5단계와, DMZ 일부권역을 4차 산업혁명과 접목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든다는 6단계로 이어진다.

특히, 임 교수는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추진 가능 사업을 구분해 시행하고 재원조달, 교류협력 거버넌스 정비, 민간 교류주체 발굴, 인도지원·개발 협력·관광산업협력의 전략적 연계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남북 공동 추진기구로 ‘접경 지역 관리위원회(가칭)’를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민선 7기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DMZ 관련 공약과 박은진 실장이 좌장으로 나서 ‘남북협력에 따른 DMZ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참석자들 간 논의가 진행됐다.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DMZ는 평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통일의 전초기지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예산·입법 등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민선 7기 도정 핵심과제인 ‘평화와 번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 몫을 톡톡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도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남북 간 협력을 통해 DMZ를 직접 활용하는 사업이 실제로 추진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DMZ의 활용사업을 통해 경기북부 문화융성과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도록 도 차원에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 ‘DMZ 포럼’은 DMZ 일원의 가치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발전전략 등에 대해 생태·안보·관광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협의체다. 다음 포럼은 오는 11월 종합 토론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서희수기자

중부일보

2018년 7월 27일 금요일 002면 종합

道, 야생생물 보호·관리 강화 DMZ야생구조센터 설립 검토

경기도는 멸종위기종은 보호하고, 유해동·식물은 퇴치 및 특별 관리하는 등 야생동물을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조만간 마무리를 목표로 ‘경기도 야생생물 보호 5개년 계획(2019~2023년)’을 수립 중이다.

26일 이 계획안을 보면 도는 현재 평

택 진위면에 도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남양주에 야생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와 협의, DMZ(비무장지대) 야생동물구조센터 설립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빼어나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나가고, 생물탐사 등으로 꾸며지는 생물 다양성 축제 개최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완태기자·편집=심미정기자

“남북 진전 발맞춰 DMZ 관광 활성화”

제2차 경기도 포럼

생태관광 공동개발 등

6단계 순차적 추진 제시

‘접경지역 관리위’ 구성 제안

‘DMZ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은 남북 간 단계별 협력을 토대로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6일 파주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열린 ‘2018년도 제2차 경기도 DMZ 포럼’에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 교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경기도 DMZ 평화 관광벨트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DMZ는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구축과 번영의 핵심 축”이라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라는 종합 계획 아래, 남북 간 관계 진전에 맞춘 단계

별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추진이 용이한 관광에서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인 생태관광과 교육, 의료, 금융 등의 분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계별 추진 방안으로는 1단계로 재난 예방 공동대응을 통한 상호신뢰 구축, 2단계로 DMZ 생태·역사·문화 자원 공동 조사 및 보전·활용 방안 마련, 3단계로 남북 협의에 따른 관광 교류협력지구 지정 및 생태관광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4단계로 도로·철도·통신 등 기본 인프라 구축, 5단계에서 이를 바탕으로 DMZ를 생태관광과 MICE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며 마지막 6단계로 DMZ 일부권역을 4차 산업혁명과 접목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다. ►► 2면에 계속 /양규원기자 ykw@

경기신문

2018년 7월 27일 금요일 002면 종합

▶ 1면 ‘DMZ 관광’서 계속

특히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추진 가능 사업을 구분해 시행하고 재원조달, 교류협력 거버넌스 정비, 민간 교류주체 발굴, 인도지원-개발 협력-관광산업 협력의 전략적 연계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남북 공동 추진기구로 ‘접경지역 관리위원회(가칭)’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날 포럼에선 민선7기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DMZ 관련 공약에 대해 살펴보고 박은진 국립생태원 생태보전연구실장이 좌장으로 나서 ‘남북협력에 따른 DMZ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참석자들 간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진찬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남북 간 협력을 통해 DMZ를 직접 활용하는 사업이 실제로 추진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DMZ의 활용 사업을 통해 경기북부 문화융성과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도록 도 차원에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MZ 포럼’은 DMZ 일원의 가치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발전전략 등에 대해 생태·안보·관광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장기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협의체다.

‘야생동물 관리 강화’ 팔 걷은 道

야생동물 보호 5개년 계획 수립

경기도가 야생동물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멸종위기종은 보호하고, 유해 동·식물은 퇴치 및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도는 조만간 마무리를 목표로 ‘경기도 야생생물 보호 5개년 계획(2019~2023년)’을 수립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계획안을 보면 도는 현재 평택 진위면에 도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남양주에 야생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와 협의해 DMZ(비무장지대) 야생동물구조센터 설립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빠어나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을 생태경관보전 지역으로 지정해 나가고, 생물탐사 등으로 꾸며지는 생물 다양성 축제 개최도 추진할 예정이다.

DMZ에 야생동물구조센터 건립

유해동식물 퇴치·특별관리 등
서식환경 개선 출몰 피해 최소화

아울러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식환경을 개선, 해당 동물들이 이 지역을 가급적 벗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육상 및 해양 생태계 교란 동·식물들을 적극적으로 퇴치해 나갈 계획이다.

도내에는 야생동물 중 포유류의 경우 양평과 가평 등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조류는 갯벌로 인해 먹이가 풍부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서식하고 있고, 식물은 개발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천과 양평, 가평 등 동북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양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준석기자 jschoi@

인천일보

2018년 7월 27일 금요일 K02면 종합

道, 멸종위기종 보호·생태계 교란종 퇴치 나섰다

야생생물 보호 5개년 계획 수립 중…구조센터 설립 등 검토키로

경기도는 멸종위기종은 보호하고, 유해 동·식물을 퇴치 및 특별 관리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조만간 마무리를 목표로 ‘경기도 야생생물 보호 5개년 계획(2019~2023년)’을 수립 중이다.

26일 도가 수립한 계획에 따르면 도는 현재 평택 진위면에 도 야생동물구

조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남양주에 야생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와 협의, DMZ(비무장지대) 야생동물구조센터 설립도 검토해 나

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빠어나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을 생태경관보전 지역으로 지정해 나가고, 생

물탐사 등으로 꾸며지는 생물 다양성 축제 개최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식환경을 개선, 해당 동물들이 이 지역을 가급적 벗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육상 및 해양 생태계 교란 동

식물을 적극적으로 퇴치해 나갈 계획이다.

도내에는 야생동물 중 포유류의 경우 양평과 가평 등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조류는 갯벌로 인해 먹이가 풍부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서식하고 있고, 식물은 개발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천과 양평, 가평 등 동북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양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수 기자 jjss3885@incheonilbo.com